

사설

후마의 '다음' 책임질 구조 세워야

5회차에 걸친 '후마니타스 15년 을 묻다' 특별기획 2부를 마무리한다. 취재 과정에서 거듭 들은 말은 "예전에는"이었다. 같은 교과를 맡은 교수들은 방학마다 모여 교재를 함께 공부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워크숍이 열렸으며, 대학장과 양캠 학장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 기억에는 좋은 교양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취재하면서 알아내고 싶었던 점은 그 협력이 왜 약해졌고, 이를 이어갈 체계는 왜 자리 잡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출범기의 열의를 오늘날의 구성원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교육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운영부터 평가방식, 교육과정 개편까지 살펴보면 확인한 것은 후마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가 방식과 관련한 논쟁은 출범 때부터 이어져 왔고, 교수·과목별 편차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세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도 취지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충분히 좁히지 못했다.

개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캠 후마와 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개편을 이끌었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현안이 끝나면 논의의 자리는 흩어졌고, 조정은 다시 몇몇 보직자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견을 조정하고 이행을 살필 상설 체계가 남지 않은 것이다.

양캠을 아우르는 대학장 자리는 2015년 이후 11년 넘게 비어 있고, 국제캠 학장직도 현재 공석이다. 예산은 정해진 몫 없이 해마다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며, 교과 운영을 함께 논의할 전임교원은 줄고 있다.

최근 일부 본부 지원 예산과 후마 관련 국고지원이 이전에 비해 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단순히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후마를 둘러싼 예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학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정년을 앞둔 전임교원들이 대거 퇴임한 이후에 후마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

후마는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 후마가 정작 내부의 이견을 꾸준히 논의하고 합의할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미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도 전혀 다른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캠퍼스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각 교수가 선택하는 수업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하며 어떤 교육목표를 함께 지킬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됐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본부와 양캠 후마는 하루빨리 어떤 것을 함께 결정하고, 어떤 것을 자율에 맡길지부터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장 선임이든 상설 협의체 구성이든 그 합의를 지속할 책임주체와 권한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방향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교원과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까지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오독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추석 연휴, 중학생 사촌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짝짝 놀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남편에게 피살됐다는 것이다. 동생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투였다.

〈암살자들〉을 직접 보고 나니 몇몇 장면이 관객에게 특정 인물을 배후로 의심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직접적인 지목 여부에만 있지 않았다. 허술한 대통령 경호는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범행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방탄 연설대 장치는 누군가 총격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두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놓이면서 누군가 공격이 가능하도록 돕는 동시에 대통령의 안전은 미리 확보해줬다는 추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 영화에서 상상력은 기록이 남기지 않은 이야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기록에 남은 사실만으론 인물의 감정을 모두 보여주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배후를 짐작하는 장면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작품 안에서 둘을 구분할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단서로 내린 판단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동생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도 비슷하다. 동생은 그 장면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 그 시대를 자세히 배우지 않은 학생에게는 영화 속 장면이 수업에서 접하는 설명보다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 작품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넓혀주지만 오염된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생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 역사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렀지만, 영화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영화를 봤다는 것과 그 사건을 안다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잊은 채 화면에서 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역사관을 형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에서의 역사 교육도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함께 다뤘으면 한다. 영화 속 장면을 기록과 비교하고, 서로 다른 설명 중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역사 이야기를 접할 때도 스스로 근거를 따져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 교육의 역할일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납득 가능한 관리비를 향해

관행이 된 관리비

조천호 기자
cjsg1026@khu.ac.kr



매달 월세와 함께 납부하는 10만 원 납짓의 관리비. 나가는 순간에는 분명 부담스럽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내 잊게 되는 돈이기도 하다. 이번 취재를 위해 만난 학우들 역시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학교 서울캠 인근 원룸의 관리비 상승폭은 월세 상승폭의 세 배에 달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라고 불릴 만큼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납부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의문보다 체념이 먼저 나타났다. 따져 묻자니 피곤하고, 괜히 까다로운 세입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며, 1~2년 살다 나갈 방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만들

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며 이러한 '당연함'을 학생 개인의 무관심이나 안일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가 원룸 대다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단기 계약을 맺는 청년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맞물려 있었다.

관리비에 의문을 품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적극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은 청춘은 없다.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산정·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 '원래 내는 돈'이란 세상에 없다. 무관심 뒤로 넘겨버리기에는, 매달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10만 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만평 내역 알 수 없는 관리비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